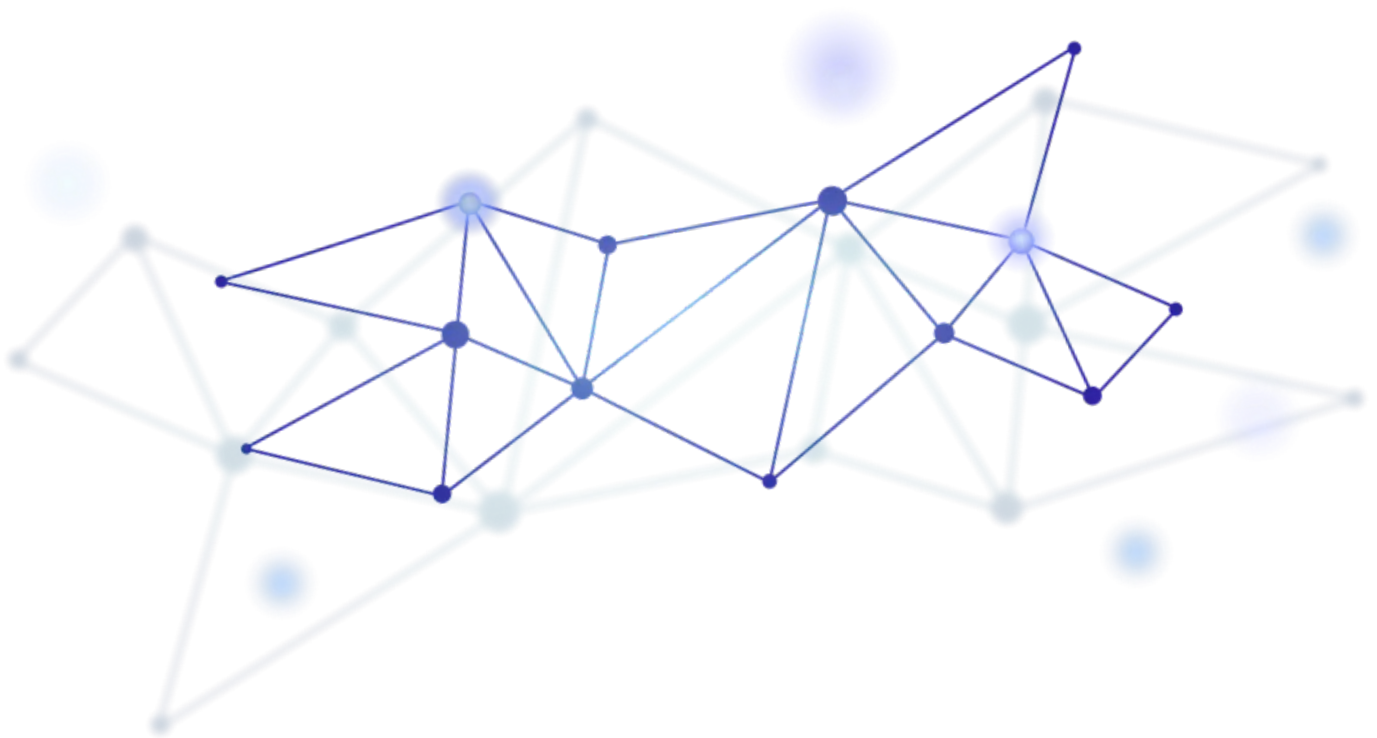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글로벌대학
수기공모전
우수사례집



부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수기공모전 우수사례집 목차

재학생 부문

01. 우물 안에서 나와 다시 바라본 나의 진로 04-06

02. 글로컬이 남긴 교사로의 이정표 07-08

03. 학사경고에서 표지 논문 저자까지, 글로컬이 만든 융합의 궤적 09-11

04.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는 변화: Glocal-PBL의 기록 12-13

05. 전포동 공구상가 기록을 통해 본 문화기억 14-15

06. 에듀테크라는 거울에 비춰본 나의 '교사됨' 16-17

부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수기공모전 우수사례집 목차

지역 부문

-
01. 현직·예비 교사가 함께 그린 글로컬 교육 혁신 19-21
-
02. 글로컬 대학에서 시작된, 창업을 향한 나의 발자국 22-24
-
03. 글로컬을 통해 배운 전공 실무 경험과 전공 교류의 가치 25-26
-
04. 배운 것을 교실로, 교실을 지역으로 - 예비교사의 성장과 확산 27-28
-
05. 글로컬대학 사업이 만든 연결의 가치 29-30
-
06. AI는 도구일뿐,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디지털 날개를 달아주다 31-33
-

재학생 부문

01. 우물 안에서 나와 다시 바라본 나의 진로
02. 글로컬이 남긴 교사로의 이정표
03. 학사경고에서 표지 논문 저자까지, 글로컬이 만든 융합의 궤적
04.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는 변화: Glocal-PBL의 기록
05. 전포동 공구상가 기록을 통해 본 문화기억
06. 에듀테크라는 거울에 비춰본 나의 '교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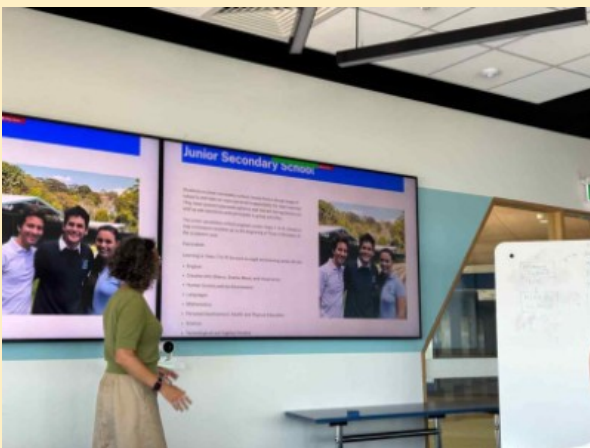
우물 안에서 나와 다시 바라본 나의 진로

참여 프로그램 PNU 글로벌 해외교육실습

2025년 2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확장 시킨 경험을 했다.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뒤 특수교사라는 새로운 꿈이 생겨 특수교육을 복수전공하고 있었다. 평소 교수님께서 북유럽이나 호주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나 특수교육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려주실 때마다 직접 그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쉽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호주로 해외 교육실습을 선발되어 부산교대, 우리 대학 사범대 친구들과 함께 호주로 떠나게 되었다.

호주에 도착해 뉴캐슬 사범대 교수님의 강의와 에듀테크 센터 방문, 현지 초, 중, 고등학교의 수업, 행사 참관, 시드니의 도서관과 박물관, 시드니 대학교를 견학하는 등 정말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호주 학제 운영에 대한 뉴캐슬 사범대학 교수님의 강의와 학교 현장참관이다. 프라이머리(초등), 세컨더리(중·고등)라는 학제 운영방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참관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는 국가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운영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어있어 우리나라가 나아가 고차 하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이번 실습에는 부산교대 친구들과 함께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초등 교육을 함께 참관하고 교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다.



< 뉴캐슬 교수님의 호주 학제 강의 >



< 헌터 스쿨 참관실습 >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과목을 한 교시에 같이 수업하는 '융합 수업'을 연구하신 교수님의 특강이다. 융합 수업은 교직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특강으로 융합 수업의 배경과 필요성,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특히 교수님이 직접 연구하신 수학-체육 융합 수업에 참여했는데, 잘 설계된 융합 수업에 직접 참여해 보니 내 교과목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은 시간이었다.



< 융합 수업 특강 >



< 수학-체육 융합 수업 >

마지막으로, 뉴캐슬 교육대학의 시뮬레이션 랩(SimLab)과 심 케이브(Sim-Cave)를 활용한 수업 실연 및 수업 설계 활동이다. 시뮬레이션 랩에서는 성격과 행동 특성이 미리 설정된 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실연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제 교실과 유사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예비교사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실 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장애 특성이나 문제행동을 사전에 설정해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한다면 특수교사의 현장 적응과 문제행동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체험한 심 케이브는 360도 가상 현실 환경을 구현한 교육 공간으로, 높은 몰입감을 주어 학습자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 기술이었다. 우리 조는 이를 활용해 장애 이해 교육 수업을 설계해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가상 현실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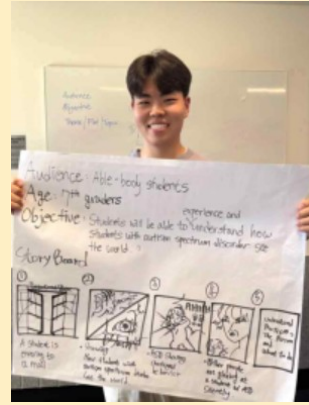
< 시뮬레이션 랩 수업실연 >



< 학부모 상담 실연 >



< 심 케이브 >



< 수업설계 발표 >

그동안 사범대학에 입학하면 무조건 임용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호주에서의 경험으로 교육에도 정말 많은 분야가 있고 다양한 진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료와 논문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언어 공부에 대한 흥미와 함께 전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겨 대학원 진학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은 단순히 해외에서의 짧은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다시 그려보게 된 전환점이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학우가 있다면 다양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잘 찾아보고 흥미있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글로벌이 남긴 교사로의 이정표

참여 프로그램 브릿지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저는 '글로벌 시대의 사서교사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브릿지 역량 비교과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1월 13일과 11월 20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저는 예비교사이자 청자의 입장으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사서교사이신 은사님을 만난 이후 줄곧 사서교사를 꿈꿔왔고, 대학 진학 후에는 무엇보다 교직이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과정을 이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론 중심의 학습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나는 교사로서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잦아졌고, 시험을 위한 준비와 실제 교사의 모습 사이의 간극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선배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제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고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은 강의실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상은 모두 뒤로 밀려나 있었고, 의자만으로 큰 원형을 이루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자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중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라며 '회복적 서클' 활동을 그대로 경험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취미, 여행 취향과 같은 여는 질문에 답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이후 다문화 교육을 주제로 한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강연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참여자 모두가 수업의 일부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2차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클 활동이 이어졌고, 강연자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교육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 사서교사의 역할,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공유 해주셨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각 주제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강연을 이어가며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사서교사의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배움을 함께 구성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학생의 목소리를 수업의 중심에 두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 교사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현수막이나 포스터의 홍보 문구를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사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 글로컬대학 사업은 거창한 성과 이전에 학생 한 사람의 고민과 필요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과의 연결', '진로에 대한 확신', '실제적인 교육 경험'을 정확히 짚어낸 프로그램 구성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체가 결국 학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학생의 작은 체감과 동기부여가 쌓일수록, 이는 곧 양질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역과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경험이야말로 글로컬 사업의 가장 강력한 성과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프로그램은 향후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확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교원을 단순히 초청해 강연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학생이 교육 수요자이자 예비 교사의 입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구조라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1회성 특강이 아닌, 여러 차시에 걸쳐 강연자와 학생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심화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향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혁신'과 '학생 역량 강화'가 더욱 깊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로컬 브릿지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은 제게 단순한 비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도 닿아, 글로컬대학 사업이 구성원들의 공감과 격려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 1차 >



< 2차 >

학사경고에서 표지 논문 저자까지, 글로컬이 만든 융합의 궤적

참여 프로그램 융합전공(반도체융합전공)

1. 얽은 지식을 넘어 근본의 원리로: 글로컬대학 선정과 성장의 발판

저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기쁨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울경 지역 산업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점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학년 때 학사경고를 받았던 부끄러운 이력은 늘 제 발목을 잡는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낙제점의 성적표를 들고 변화하는 산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 글로컬 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혁신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변화에 발맞추고자 독학으로 유튜브나 대중 매체를 찾아보기도 했으나, 그곳의 정보는 대개 개략적인 개념을 훑어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공학도로서 저는 "MOSFET의 동작 원리는 무엇인지",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갈증은 반도체를 단순한 상식이 아닌, 전공 수준의 깊이 있는 학문으로 탐구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열망 끝에 만난 '반도체융합전공'은 저의 학구열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계공학적 기반 위에 반도체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반도체공학 및 공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며 MOSFET의 동작 메커니즘부터 8대 공정의 세부 기술, 신호 분석에 필수적인 푸리에 변환까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 했던 심도 있는 공학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흡수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업 장려금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학교가 저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준다는 강력한 정서적 지지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 전공 서적과 강의 노트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입학 후 처음으로 4점대 학점을 기록하며 '학사경고생'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신감은 저를 다시 강의실 밖의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공학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도전했던 '소변이 튀지 않는 소변기 개발' 연구대회에서의 수상은, 단순한 공부를 넘어 공학적 상상력이 현실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 라스베이거스의 열기 속에서 찾은 나침반: 2024 CES 참관기

강의실과 연구실에서의 시간이 지식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융합전공의 지원으로 참가한 '2024 CES'는 공학도로서의 세계관을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마주한 AI의 물결은 IT 산업을 넘어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등 인류 삶 전반에 깊숙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그중에서도 'AirJet'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냉각 솔루션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열전달 과목에서 배운 '표면적에 비례하는 열전달 효율'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마이크로 스케일의 핀(fin) 구조 패터닝을 통해 현실로 구현해 낸 기술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원리가 미세 구조를 만드는 공정 기술과 만났을 때 소음과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인 팬리스(Fanless) 솔루션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며,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실천하고 검증하며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완벽한 이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가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검증하는 '실천력'에 달려 있음을 깊이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3. 실험실에서 피워낸 결실: 수많은 실험들과 표지 논문의 영광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CES에서 얻은 '실천'의 교훈을 연구에 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였던 '소변이 튀지 않는 소변기' 연구를 학술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도교수님을 찾아뵈었고, 어떤 표면 설계가 비산과 잔류를 동시에 억제하여 반도체 공정의 파티클 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실험 결과를 보고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밀도 있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저는 PDMS 기반의 다양한 표면을 직접 제작하고 접촉각, 탄성도, 표면 구조를 변경해가며 수천 번의 고속 카메라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초기에는 분석 경험이 부족해 엑셀 수작업과 VBA 자동화에 의존하며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 액적 궤적의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는 Python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노력 끝에 정리한 연구 결과는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경험은 부산대학교의 글로벌 사업 지원이 실제적인 연구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저 자신도 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4. 졸업과 진학: 더 큰 기여를 위한 새로운 시작

졸업을 앞둔 지금 1월,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얻은 경험과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기회들은 저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지역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공학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목표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 과정은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제가 받은 지원을 학문적 성과로 증명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추구하는 지·산·학 혁신의 작은 결실이 되어, 제가 받은 혜택을 우리 대학과 지역 사회에 연구 성과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저의 사례가 변화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동기부여가 되고, 대학과 지역 산업에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정진하겠습니다.



< CES 참가 사진 >



< CES 참가 사진 >



< 소변이 튀지 않는 소변기 개발 공모전 >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는 변화: Glocal-PBL의 기록

참여 프로그램 2025 Arise Glocal-PBL

요즘 지역에서 자주 들리는 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체감되는 곳이고, 그 결과 빈집과 유휴공간이 늘면서 동네의 활기와 안전감이 함께 약해지는 모습을 쉽게 마주하게 된다.

내가 생활하는 부산과 밀양에 대해 직접 보고 느끼며, 빈공간과 그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면 일상으로 그 공간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Arise Glocal-PB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러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Arise Glocal-PBL은, 학생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설정하고, 자료 조사와 현장 인터뷰, 해외 사례의 탐방을 통해 해결 방향을 만들어, 다시 지역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 중심의 학습 활동이다. 팀의 팀장으로서, 기획과 자료 제작 및 결과물 구성을 맡아서 진행하며, 지역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며, 전공을 통한 문제 해결 방향을 탐색했다.



< 밀양시 삼문동내 빈집 >



< 밀양시 삼문동내 빈집 >



< 한국부동산원 빈집애 >

대상지인 밀양시 삼문동을 다니며, 빈집과 공터의 증가가 도시 쇠퇴를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점을 느꼈다. 유동인구와 상권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골목은 더 어두워지고, 주민들은 불편함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함께 이야기했다.

이에 밀양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은 세토우치시를 중심으로, 일본 오카야마현 일대를 답사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빈집과 생활권 약화에 대한 제도와 실천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삼문동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기에 적합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한 건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행정 정책을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휴공간 변화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우시마 테페모크(Tepemok)는 폐시설을 카페·전시·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운영을 결합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문화·예술 기반 재생은 장점과 과제가 함께 존재했다. 나오시마와 쿠라시키 사례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생활 불편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도시재생은 결국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균형을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배웠다.

결국 사람이 다시 머무를 이유를 만들고, 그 공간을 유지할 관계와 운영 구조를 세우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우시마 테페모크 운영 개요 >

< 밀양시 삼문동내 빈집 >

< 쿠라시키 리노베이션 시설 >

단순히 답사와 배움에서 이 활동은 끝나지 않고, 삼문동행정복지센터와 밀양시청에 다시 방문해서, 우리의 성과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를 거쳤다. 물론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실행이 되겠지만, 주민자치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 그 후로, 빈집과 관련된 리빙랩 프로그램과,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서포터즈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부산 경남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생활하며, 조경학과와 도시공학과를 전공하며,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질문하며 해결 방향에 대해 직접 확인하며, 다시 지역으로의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포동 공구상가 기록을 통해 본 문화 기억

참여 프로그램 전포동 도시기록자 리빙랩

부산 가덕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 25년 만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나는 도심에서 이주해 12년째 이 지역에 정주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삶과 사람, 로컬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공항문제로 개발과 공사가 반복되는 현장이었지만, 내가 더 안타깝게 느낀 것은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만이 기억 하고 있는 이야기와 풍습,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평생교육을 전공하며, 이것은 단순히 보존이나 개발이냐의 문제가 아닌 삶의 기억과 이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인 「전포동 도시기록자 리빙랩」에 참여하게 되었고,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기록의 방식과 기술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전포동이라는 동네를 학습자, 연구자, 행정가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스스로 기록해 보는 실천 기반 프로그램이다. 나는 팀장을 맡아 조원들과 함께 전포동 공구상가를 중심으로 기록 대상을 정하고, 사전 자료조사, 인터뷰 설계, 현장 기록까지 총 6회차의 워크숍과 필드워크로 진행하였다.

기록의 주제는 부산 전포동의 공구상가에서 카페거리로의 도시 전환 과정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공간과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헌조사와 병행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40~50년간 자리를 지켜온 기술자들의 생애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의 적응, 기술 소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듣고 기록했다. "예전엔 이곳을 '질포동'이라 불렀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마대를 깔고 다녔어요."라는 말로 시작된 인터뷰는 공구상가의 역사뿐 아니라, 도시 속 기록되지 않은 삶의 애뜻함과 절실함이 담긴 이야기였다. "임 대료를 올리지 않은 건,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싶어서예요." 이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과 도시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했다.



일과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는 나에게 있어, 이번 경험은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사고가 교차하면서, 기존에 인프라 중심으로만 인식하던 도시를 문화 자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었다. 지금 대학의 연구자 혹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지역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는 경험을 보았으면 한다.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시민으로서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느냐는 본인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든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곧 지역사 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와도 연결되므로 도시를 읽고 해석해보는 경험을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속되길 바란다. 지금 대학의 연구자 혹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지역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는 경험을 보았으면 한다.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시민으로서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느냐는 본인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든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곧 지역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와도 연결되므로 도시를 읽고 해석해보는 경험을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속되길 바란다.

전포동 공구상가의 형성과 변화 - 전성기의 전포동



모든 공구는 '전포동'이던 시절

- 1980~2000년대 부산 제조업 성장기
- 부전동 168번지에서 전포동으로 확장
- 공구상가가 밀집된 산업 생태계 형성
- '가게'가 아닌 '기술의 마을'로 불림
- 부산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 역할

산업 공급의 중심지

- 공장, 선박, 건설 현장 부품 공급처
- 모든 전자 부품은 이 골목으로 집결
- 부산 제조업 성장의 물적 토대 제공
- 항만, 공장과 연결된 부품 유통 경로
- 산업 현장의 필수 거점으로 자리매김



기술이 곧 경쟁력

- '이 골목에서는 기술만 있으면 굶지 않는다'
- 기술 숙련도가 곧 경쟁력이던 시기
- 도면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장인들
- 컴퓨터에 남지 않는, 몸이 기억하는 기술
- 현장 경험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 중시

협업 문화: 형님-동생 네트워크

- 점포 간 협업을 통한 비공식 산업 네트워크
- 형님-동생 관계로 맺어진 기술자 커뮤니티
-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구조
-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협력 시스템
- 신뢰 기반의 거래 관계 형성



01

도면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 '이 소리면 어디가 문제인지 안다'
- 수십 년간 축적된 감각적 지식
- 소리, 진동, 온도로 고장 진단
-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 문제 해결



02

기록되지 않은 설계들

- 톱력 발전기 1호 코아 제작
- 주문 제작 코아 설계 및 생산
- 도면 없이 현장 상황에 맞춘 개조
- 기록되지 않은 기술적 노하우



03

몸이 기억하는 기술

- 컴퓨터에 남지 않는 장인의 기술
- 손끝의 감각으로 전달되는 지식
- 40년간 이 골목을 지탱한 힘
- 사라져가는 체화된 기술의 가치

에듀테크라는 거울에 비춰본 나의 '교사됨'

참여 프로그램 2025 에듀테크를 만나다(Edutech-On)

유아교육과 2학년을 보내며 나를 가장 괴롭힌 감정은 '막막함'이었다. 지난 학기 '아동 수학지도' 수업 시간이 떠오른다. 아이들이 블록으로 지하철을 만드는 놀이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개입해야 수학적 사고를 넓혀줄 수 있을지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되뇌었지만, 정작 내 입에서는 "우와, 멋지게 만들었네!" 같은 단순한 칭찬밖에 나오지 않았다. 공간이나 도형 같은 개념을 놀이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지식을 설명하는 건 AI가 훨씬 정확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건 로봇이 지치지 않고 잘할 텐데, 미래의 교실에 과연 서툰 초임 교사인 나의 자리가 있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주도성을 강조한다는데, 정작 나는 정답만 찾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안고 종합교원양성센터의 '2025 에듀테크를 만나다(Edutech-On)'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당장 내 안의 불안감을 해소할 실마리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2025 에듀테크 페어 코리아' 박람회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나는 '만능 도구'를 기대했다. 내 부족한 수업 능력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신기한 기술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기술들은 실제로 대단했다.

특히 토포로그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며 감탄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형 모형을 손으로 만지면, 태블릿 화면 속에 똑같은 지형이 3D 가상 공간(VR)으로 펼쳐지는 기술이었다. 아동수학지도 시간에 내가 그토록 설명하기 힘들어했던 공간 감각을, 이 기술은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어 보였다. "아, 기술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이 나에게 준 진짜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 빈틈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체험할 때였다. 로봇은 성우 뱀치는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지만, 내가 호기심에 "루카야, 주인공은 왜 울고 있어?"라고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책만 읽어 내려갔다. 로봇은 글자는 읽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엉켜있던 생각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동안 AI에게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건 내가 교사의 역할을 단순히 '지식 전달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람회장에서 나는 "기술은 정답을 주지만, 교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포로그가 정확한 지형을 보여주고 루카가 책을 읽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의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여기-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틔우게 돕는 것이다. 로봇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아이의 표정을 살피며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야 한다. AI가 아이의 발달 데이터를 분석해 주면, 나는 그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을 아이의 삶과 연결해 주는 '자기맥락화'와 '성찰'을 돕는 인간 교사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나만의 교육관은 이후 떠난 '상하이 사범대학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큰 힘이 되었다.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단단한 관점을 세우고 갔기에, 상하이 현지 유치원의 화려한 디지털 환경을 보면서도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술을 쓰되, 아이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교사는 어떤 질문을 준비해야 할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내공 덕분에, 해외에서도 그저 관찰자가 아닌 주체적인 연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2025 에듀테크를 만나다(EduTech-On) 프로그램'은 나에게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교사됨'에 대한 확신으로 바꿔준 전환점이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술 위에 너만의 따뜻한 철학을 얹으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이제 AI가 주는 편리함을 똑똑하게 이용하되, 그 여유를 온전히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데 쓰는 교사를 꿈꾼다. 기술은 차갑지만 나의 질문은 따뜻할 것이며, 데이터는 냉정하지만 나의 해석은 다정할 것이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발자국 성장한 내가 그리는 미래 교실의 모습이다.

지역 부문

01. 현직·예비 교사가 함께 그린 글로컬 교육 혁신
02. 글로컬 대학에서 시작된, 창업을 향한 나의 발자국
03. 글로컬을 통해 배운 전공 실무 경험과 전공 교류의 가치
04. 배운 것을 교실로, 교실을 지역으로 - 예비교사의 성장과 확산
05. 글로컬대학 사업이 만든 연결의 가치
06. AI는 도구일뿐,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디지털 날개를 달아주다



현직·예비 교사가 함께 그린 글로컬 교육 혁신

참여 프로그램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참여한 글로컬대학 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부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AI·디지털 교원양성 과정 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

○ 참여 시기 및 참여자 본인의 역할

2024년 11월 8일(금) 및 11월 15일(금) 총 2회에 걸쳐 강사 및 멘토로 참여함. 당시 명륜 초등학교 현직 교사로서 유아교육과 학생 동아리 아이온(AION) 소속 예비 교사 3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수행하였으며, 온라인 소통방을 유지하며 지도조언함.

○ 참여 동기 또는 계기

본 교사는 11년의 교직경력 및 AIEDAP마스터교원, 터치교사단, 교실혁명선도교사 등으로 활동중입니다. 인공지능과 에듀테크가 교실의 필수 역량이 된 시대에, 현장의 생생한 수업 사례를 예비 교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 학생들이 수업 공모전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과 부산 현직 교육 현장이 만나 미래 교육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참여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 내용

1회차에서는 '교육에 AI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교육 현장의 변화를 강의했습니다. 에듀테크의 분류 체계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ChatGPT, AutoDraw 등)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예비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였습니다. 2회차에서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활용가능한 에듀테크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며 교수학습 자료를 고안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특강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유초이음교육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 자료를 고민하여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AI·디지털 융합교육 콘텐츠'개발 과정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인 유아 교육과 AI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지도안의 흐름과 AI 및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식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경험, 문제 해결과정, 협업 사례 등

예비 교사들이 설계한 콘텐츠의 AI 윤리 및 안전성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와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지도안 단계마다 구체적인 유의점을 배치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또, 사전에 학생들이 작성한 지도안을 살펴보고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이해를 주제로 캔바(Canva)와 ZEP 메타버스를 활용한 3차시 수업 설계를 완성하도록 돕기도 하고 AI 감정 인식 앱 (심스페이스, Mightier 등)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ChatGPT로 가사를 개사하고 SUNO AI로 노래를 만드는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사업 및 프로그램 이후 느낀 변화나 배운 점

현직 교사로서의 경험이 예비 교사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AI의 시대에서, 이를 방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예비교원들과 가졌다는 것이 뜻깊었습니다. 또, 그동안 현직 교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교원에게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 수치(학점 등), 사례, 체감 효과 등 구체적 내용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은 2024 AI·디지털 융합교육 콘텐츠 경진대회에 응모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결과물을 산출했습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의 수업 자료 개발 및 수업 실연 역량 강화로 직접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글로벌대학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처음에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단순히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재정 지원 사업 정도로만 이해했으나, 이번 멘토링을 통해 이 사업이 지역 교육 생태계를 혁신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동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의 글로벌대학 비전인 '에듀 트라이앵글'은 대학과 지역, 산업계가 벽을 허물고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직 교사로서 대학의 예비 교원 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학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실천적 지혜가 만날 때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글로벌대학30의 본질적 목적에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처음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단순히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재정 지원 사업 정도로만 이해했으나, 이번 멘토링을 통해 이 사업이 지역 교육 생태계를 혁신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동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비전인 '에듀 트라이앵글'은 대학과 지역, 산업계가 벽을 허물고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직 교사로서 대학의 예비 교원 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대학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실천적 지혜가 만날 때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글로컬대학30의 본질적 목적에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례가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멘토링 사례는 대학의 예비 교원 교육이 강의실 안에서의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현직 교원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비교원-현직교원 멘토링 특강을 통해 예비 교원의 교육 실무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에게도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최신 교육 트렌드를 수용하는 상호 성장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의 창의적인 AI 활용 아이디어에 저의 현장 경험이 더해졌을 때,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교육적 가치가 담긴 콘텐츠가 탄생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다른 교수진이나 현직 교원들에게도 대학과 현장이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미래 교육의 필수 요건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향후 활용·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견

향후 부산대학교 종합교원양성센터의 플랫폼이나 지역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개발한 콘텐츠들을 지역 사회에 배포하고,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면 글로컬 대학 사업의 성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비 교원과 현직교원의 멘토링 모델을 정교화하여, 더 많은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가 미래 교실의 설계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예비교원-현직교원 멘토링 특강 활동 >

글로벌 대학에서 시작된, 창업을 향한 나의 발자국

참여 프로그램 릴레이 창업체험 교육 - 커피(카페) 창업

○ 참여한 글로벌대학 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릴레이 창업체험 교육 「커피·카페 창업 과정」

○ 참여 시기 및 참여자 본인의 역할

2025. 12. 22.(월) 14:00-18:00, 커피 창업체험 교육 전 과정 참여

○ 참여 동기 또는 계기

지역에서 카페 창업은 흔하지만, 실제로 살아남는 카페는 많지 않다는 생각에 '커피를 잘 만드는 법'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창업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어 본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1) 대표의 창업 스토리에서 배운 '버티는 시간'

교육은 대표의 개인적인 창업 히스토리로 시작되었다. 공대 졸업 후 금융권에서 1년간 근무하다, 우연히 접한 게이샤 커피의 향미에 큰 충격을 받아 커피 업계에 뛰어들었다. 커피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 약 4천만 원을 투자했고, 창업 초기 1~2년은 적자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대표는 "성공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역 창업의 현실을 관통하는 메시지로 느껴졌다. '창업 성공'이 아닌 '창업 생존'이라는 관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2) 콘텐츠 중심 운영 전략과 지역 확장 시도

오아스로서터스의 운영 전략은 단순한 커피 판매에 머물지 않았다.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정기적인 이벤트와 기획 행사를 운영하고, 게이샤 원두를 활용한 젤라또, 티라미수, 판나코타 등 커피 기반 디저트 라인업을 개발해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 벅스코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커피를 매개로 한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유명 젤라또 아이스크림 카페와 오아스로스터스의 커피를 만나, 차별화된 콜라보 디저트 >

3) 창업 비용과 정부 지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 비용과 정부 지원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최소 3~5천만 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차별화 무기가 필요하다는 점, 소상공인 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 고용24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자본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누적된 신뢰”라는 말은 창업을 숫자가 아닌 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4) 로스팅·핸드드립 실습을 통한 체감형 학습

이론 교육에서는 원두 가공 방식(워시드, 내추럴, 동시발효)과 로스팅 과정에서의 ROR(Rate of Rise), 1차 크랙, 마이야르 반응의 의미를 실제 사례로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핸드드립 실습에서는 분쇄도 수치, 블루밍 시간, 추출량을 수치화된 레시피로 반복 실습하며 감각이 아닌 재현 가능한 커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 워시드, 내추럴, 동시발효(ca-fermentation) 등 원두 가공 방식 차이 학습 >

○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인식변화

기존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대학 내부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이 지역 산업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경험으로 전달하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시사점

이 교육은 창업을 꿈꾸는 지역민에게는 막연한 환상을 걷어내는 현실 교육이 되었고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기술 + 창업 스토리 + 체계적인 실습' 구조는 다른 지역 산업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글로컬 모델이라 판단된다.

○ 수치(학점 등), 사례, 체감 효과 등 구체적 내용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은 2024 AI-디지털 융합교육 콘텐츠 경진대회에 응모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결과물을 산출했습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의 수업 자료 개발 및 수업 실연 역량 강화로 직접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꿈꾸는 나에게 막연한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이었으며, 지역에서 일하고, 버티고, 확장해 나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릴레이 창업체험 교육은 글로컬대학이 왜 지역과 함께 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이해하게 만든 경험이었고,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지역에서 오래 버티는 삶과 사업을 이해하게 만든 글로컬대학의 실천적 교육 경험이었다.

글로벌을 통해 배운 전공 실무 경험과 전공 교류의 가치

참여 프로그램 PNU-BNUE 창업경영시뮬레이션 캠프

글로벌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PNU-BNUE 창업경영시뮬레이션 캠프에 참여하며 기업 경영 전반을 실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연합하여 운영한 캠프로 CEO, CTO, CFO, COO 등 임원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기업 운영과 유사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CFO 역할을 맡아 기업의 재무 전략 수립과 자금 조달, 수익 구조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참여하였습니다.

평소 창업과 기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창업지원단 주최 대학연합창업캠프, 드림지니 창업캠프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MVP를 제작하고 Notion을 활용한 랜딩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을 서로 다른 전공과 학교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이후 다른 공모전에 활용해 수상이라는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시를 활용한 마케팅과 임원 역할 기반의 PNU-BNUE 창업경영시뮬레이션 캠프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기업 재무 및 회계 과목을 수강 중이었고 향후 진로 역시 금융·재무 분야로 설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해 보고, 다른 전공을 가진 팀원들과의 협업을 기대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전공 이론의 실전 적용과 대학·전공 간 협업의 중요성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부품을 조달해 중국, 미국, 한국 시장에 판매하는 상기업을 가정하고 경영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공장 설립 여부, 국가별 물류 비용, 환율 변동 등 다양한 외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CFO로서 환율과 단위당 물류 운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으로의 판매 전략이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인사 운영, 부품 조달, 수출 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 전략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부품 가격 헤지 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교내 수업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하던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무 전략을 기반으로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협업한 결과 라운드 진행 과정에서 순이익률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이었습니다. 팀원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끌어 주었으며 이는 팀 내 의사결정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재무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제 설명이 일부 팀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진 순간도 있었으나 부산교대 팀원들이 참여자 눈높이에 맞게 풀어 설명해 주며 원활한 이해를 도왔고 이때 전공 지식이 타 전공 구성원과 공유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공 지식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 다른 전공과 역할이 결합 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체감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전공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의 성장과 성공이라는 점에서 같았지만, 신규 공장 건설이라는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계공학 전공 팀원은 기술적·수치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부산교육대학교 팀원은 구성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였으며, 저는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실제 기업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하며 공통된 목표를 향해 의사결정을 이어가는 구조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았으며, 글로벌대학 사업이 추구하는 '연합과 협업'의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글로벌대학 사업이 일회성 교류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활동 종료 이후에도 팀원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상호 자문과 지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협업의 효과가 프로그램 이후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만 학습 하던 재무·금융 지식이 실제 경영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기관에 지원하였고 실제로 서류 합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본 경험을 통해 글로벌대학 사업은 단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전공 간·대학 간 협업을 통해 학습의 깊이와 방향성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창업캠프 프로그램이 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확대되어 시제품 제작, 모의 판매, IR 피칭 등 실질적인 창업 과정으로까지 연계되고 나아가 지역 내 유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 창업 기업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배운 것을 교실로, 교실을 지역으로 - 예비교사의 성장과 확산

참여 프로그램

2024년 글로컬 에듀 학생 서포터즈,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동아리 아이온, AI·디지털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AI·디지털 기반 지역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디지털 점프

2024년, 나는 글로컬 에듀 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글로컬대학 사업을 처음 접했다.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사범대학 학생의 시선에서 이해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경험을 통해 글로컬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변화가 실제 대학교육과 학생들의 경험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같은 해 참여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동아리 '아이온'으로 이어졌다. 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었다. 아이온에 참여하며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suno ai, 뽀빠리, 패들릿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도구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여 "'소중한 나, 행복한 나' 뮤직북 출판하기"라는 주제로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AI 디지털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개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우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도 얻었다. 다음해인 2025년에는 교육실습에 참여하며, 그동안 글로컬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었다. 아이온에서 알게 된 다양한 교수학습 도구들과 콘텐츠를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하며 교육적 효과와 한계를 직접 마주하였다. AI와 디지털 도구들은 단순히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협력자로서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함을 깨달았다.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기술 자체 보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AI·Digital 기반 지역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생성형 AI로 그리는 미래설계 교실과 에듀테크 실증 확산 디지털 점프 두 가지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로 참여하며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 경험을 갖게 되었다. AI·Digital 기반 지역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활동이 특히 인상깊다. 그 이유는 실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있다. 5개의 중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뽀빠리를 이용한 흥미 분석, 인포그래픽이다. 특히 예비교사로서 콘텐츠 개발, 교육실습, 지역 연계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험은 나의 교육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다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글로컬대학 사업 참여의 실질적 가치를 전달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글로컬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는 교사로서의 역량이 중요함을 알고 수업 및 교수 전략 등에 대한 성찰을 학습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글로컬대학 사업 참여와 병행하던 3학년 2학기과 4학년 1학기 모두에서 학점 4.5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니라, 교육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학습 방식이 실제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과 연계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교사로 성장하고자 한다. 글로컬대학에서의 참여 경험은 나에게 교육을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 글로컬 에듀 학생 서포터즈 >

콘텐츠 개요

콘텐츠명	소중한 나, 행복한 나 유익에 출판하기		
학교급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활동AI 디지털 도구	16 Personalities, 펜앤, 나의 AAC, MindMaster, Google docs, SNS, yves, ZIP
적용 교과			
콘텐츠 설명	본 콘텐츠는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인식과 진로 연계 활동을 통한 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 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피드백을 통해 깊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인식 및 진로 인식 활동을 접목한 통합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인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콘텐츠 개발 의도	학생들은 AI도구를 활용하여 '소중한 나, 행복한 나'라는 주제로 유익성을 증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자기 인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도구는 학생들이 현실의 문학적 표현을 넘어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도구를 통해 학생들은 손쉽게 문학을 생성하고, 완성된 작품을 서로 감상하여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문학을 창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 인식 및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동아리 아이온 >



< AI·디지털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



< AI·디지털 기반 지역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

글로벌대학 사업이 만든 연결의 가치

참여 프로그램 하나되는 우리, 함께 만드는 굿즈 창업캠프

2025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부산대학교 글로벌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BNUE x PNU 창업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대학 사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으나, 이번 BNUE x PNU 창업 CAMP는 저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 2년간 재학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부산교육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대학은 달라졌지만, 두 대학에서의 경험은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애정을 갖고 있고, 소중합니다. 특히 갓 스무살이 되어 부산대학교에서 처음 경험한 대학생활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여전히 마음 한 켠에는 부산대학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함께 주관한 창업 캠프는 과거와 현재의 저를 다시 잇는 듯한 반가운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대학 간 소속의 경계를 넘어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한다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취지가 제 경험과 맞닿아 있었고, 그 의미를 직접 체감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팀 빌딩을 거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통합 상징 캐릭터를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I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와 프롬프트 작성 실습을 통해 캐릭터 콘셉트 설정, 스케치, 세계관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완성된 캐릭터를 바탕으로 굿즈 기획과 SNS 마케팅 콘텐츠를 구상하였으며, 카드뉴스와 상세 페이지 초안 제작 등 실제 창업 및 마케팅 과정과 유사한 실무 중심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업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전공과 학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협업 과정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과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섞여 팀이 되어 통합 마스코트를 기획하면서, 캐릭터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두고 다양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협업 과정에서 다른 환경,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조율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과 마케팅은 특정 전공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ChatGPT, Google Gemini 등 AI 도구에 대해 이전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한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활용 과정에서 사람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명령어를 통해 단시간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가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대학 사업은 단순한 대학 지원 정책을 넘어, 대학 간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전공이나 진로에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막연히 초등학교사라는 진로만을 떠올렸던 저에게, 이번 캠프는 교육 분야에서도 창의적 기획 역량과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역량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BNUE × PNU 창업 CAMP는 향후 대학 간 협력 사례로서 홍보 콘텐츠, 교육 자료, 비교과 프로그램 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 가능한 우수한 글로벌대학 사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 기반 대학 협력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글로벌대학 사업의 취지인 '지역과 세계를 잇는 대학'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AI는 도구일뿐,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디지털 날개를 달아준다

참여 프로그램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참여한 글로벌대학 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참여 시기 및 참여자 본인의 역할

2025년 11월 7일(금), 특강 주강사(중등영어교사)

○ 참여 동기 또는 계기

현직 중등영어교사로서 급변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체감하며, 동시에 부산대학교 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에서 수학하며 AI 기술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대학원에서 얻은 학문적 이론과 최신 에듀테크 기술을 현장 경험과 결합하여,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역량을 전수하고자 강단에 섰습니다. 예비 교사들이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수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조력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 실제 참여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 내용

교육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LLM 기반 수업 설계 (1차시): 챗GPT(ChatGPT) 등 LLM을 활용하여 중학교 영어 교과서 지문의 난이도를 학습자 수준에 맞게 3단계 (Basic, Intermediate, Advanced)로 조정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휘 수준을 고려할 것", "5형식 문법을 2개 이상 포함할 것"과 같은 제약 조건(Constraints) 기반의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 인공지능 결과물을 정교화하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멀티모달 기반 영어 창작 교육 (2차시): AI 영상 편집기 Vrew를 사용하여 영어 뉴스 영상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자막의 오역을 교정하여 수준별 듣기 평가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가사(예: 관계대명사 용법)를 기반으로 Suno를 이용해 'AI 문법 송(Song)'을 제작했습니다. 생성형 AI로 영어 지문의 내용을 웹툰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독해 후 활동(Post-reading)에 적합한 시각적 보고서를 도출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경험, 문제 해결과정, 협업 사례 등

사범대생과 일반대생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전공별 시너지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강조하는 'AI 윤리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프롬프트 수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 사업 및 프로그램 이후 느낀 변화나 배운 점

단순한 기술 전달자가 아닌, AI를 활용해 교육의 질을 디자인하는 '에듀테크 디자이너'로서의 교사 역할을 예비 교사들과 공유하며 강사로서도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 현장의 생생한 피드백

"막연히 AI가 교사를 대체할까 봐 불안했는데,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동화 대시보드를 보며 오히려 교사가 수업 기획과 학생과의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어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필드에서 AI가 어떻게 멀티모달(노래, 영상, 웹툰)로 구현되는지 경험하며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 글로벌대학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학문과 현장의 가교 - 본 특강 이전에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거시적인 담론으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강단에서 예비 교사들과 호흡하며, 대학원(AI 융합교육전공)에서 연마한 학술적 지식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교육 현장의 실무 역량으로 치환되는 '지식 선순환'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핵심 엔진임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례가 다른 구성원에게 주는 시사점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AI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맥락(Context) 안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납니다. 본 사례는 타 교과 전공자들에게도 자신의 전문 영역에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비전공자와의 융합 시너지: 사범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이 함께 LLM 챗봇을 설계하고 Suno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미래 교육이 개별 전공의 벽을 넘어선 '협업 기반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향후 활용·확산 가능성에 대한 의견

일회성 특강에 그치지 않고, 본 수기를 바탕으로 대학원 전공생들이 멘토가 되어 학부생들의 AI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글로벌 AI 멘토링 시스템'의 기초 모델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